

2015년
3월 15일
제 28 호

MBC
mbcsau.com

社友會報

自由·責任
品格·團合

● 발행처 (사)문화방송사우회 100-702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TEL 02-722-7416 E-mail: mbcsau@mbcsau.com ● 발행·편집인 김수량·편집장 김상옥

2015년도 사우회 정기총회 개최



2015년도 MBC사우회 정기총회가 2월26일(목) 오전 11:00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리더스나인 서대문점'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4년도 결산과 2015년도 예산 3억 5,280만원을 수정없이 참석회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새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3,300만원이 증가한 것인데, MBC 상암동 신사옥 동산(動産) 화재보험과 화원(花園) 전대료(轉貸料) 및 사우회보 광고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최준식 사무처장으로 부터 2014년도에 사무처가 실시한 업무에 대한 보고와 사무처 특별감사 실시에 대한 이해걸 감사의 보고가 있었다. 이해걸 감사는 "김수량 회장의 요청에 따라 1월13일(화)에 사무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감사 결과 은행예금과 통장, 현금보유액수가 정확했으며 경비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도 완벽했다"고 말했다. 이 감사는 이어 "김 회장 취임이후 회보 광고료와 부동산 임대수입 등이 늘어 사우회 재정이 한층 건전해졌다"면서 사무처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수량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더 많은 수익을 올려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회원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총회는 역대 총회 중 가장 많은 192명의 회원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는데 임국희(ANN) 회원을 제외한 다른 여성 회원들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새 회장 '문비회-조한건, 문미회-표찬일, 문우회-장기태'

비상계획부 출신 회원들의 친목단체인 文非會 새 회장에 조한건(관리) 회원이 선임됐다. 문비회는 지난해 12월28일에 열린 송년모임에서 조 회원을 2년 임기의 새 회장으로 선임했다. 방운식 총무는 연임됐다. 미술부 친목단체인 文美會도 표찬일 회원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한수 총무는 유임됐다. 차량부 친목단체인 文友會도 장기태 회원을 새 회장으로 뽑았다. 총무는 당분간 현 전병욱 총무가 계속한다.

문화보험 이사회

문화보험판매(유)는 2월13일(금)에 2015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2014년도 결산과 올해 예산 1억 8,600만원을 심의, 통과시켰다.

고문단 초청, 회장단과 오찬

사우회 김수량 회장은 2월6일(금) 고문(顧問)들과 부회장들을 한정식집 '어상'으로 초청해서 신년하례식을 겸한 오찬(午餐)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신년하례식에는 이수홍, 서규석, 노서을, 우윤근, 김민식 고문과 박근숙 명예회장이 참석했으며 사우회에서는 이견세, 신대근, 임주완, 김용빈, 이용구, 백하현 부회장과 임국희, 이해걸 감사, 사무처 임직원 등 19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사우회 봄철 행사 일정 확정

등산4/29(수), 골프5/12(화), 단합대회5/18(월), 낚시5/22(금), 바둑6/4(목)

사무처는 동호회 회장단과의 협의를 거쳐 2015 상반기 행사 일정을 확정했다. 가장 먼저 열리는 행사는 등산대회로 4월29일(수) 오전 10:00부터 북한산 둘레길을 걷게 되는데, 자세한 코스와 모이는 장소, 교통편은 추후 엽서로 통보한다. 골프대회는 5월12일(화) 진천 중앙골프클럽에서. 회원단합대회는 5월18일(월) 11:00부터 양주 문화동산에서 개최하며, 낚시대회는 5월22일(금)에 실시하는데 장소는 추후 결정해서 참가 희망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바둑대회는 6월4일(목) 10:00에 사우회 사무실에서 대진 추첨 후 바로 대국에 들어가며, 회원 산업시찰은 6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MBC 관계회사 주주총회 열려

MBC는 3월3일부터 3월5일까지 관계회사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새로운 임원을 선임했다. 대전MBC 사장에는 이진숙 보도본부장이 선임됐으며, 전주MBC 사장에는 원만식 예능본부장, 제주MBC 사장에는 김창욱 대전MBC 사장, 원주 MBC 사장에는 김철진 편성제작본부장이 선임됐다. 전영배 MBC C&I 사장과 한윤희 MBC플러스미디어 사장, 윤동열 MBC미주법인 사장은 재선임 됐다.

엠비씨씨앤아이, 엠비씨플러스미디어 사옥 이전

엠비씨씨앤아이와 엠비씨플러스미디어가 일산 MBC드림센터에서 새롭게 출발한다. 엠비씨씨앤아이는 3월16일부터 그동안 누리꿈스퀘어, DMC첨단산업센터 등으로 나뉘어져 있던 업무시설을 통합해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통해 도약을 모색한다. 3월2일 이전을 완료한 엠비씨플러스미디어는 최첨단 디지털 방송 인프라를 구축하고 최고의 콘텐츠 제작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도약을 시작한다. 두 회사의 새로운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6 MBC드림센터 5층, 8층(씨앤아이), 9층(플러스미디어)이다

MBC+ MEDIA

매주 화요일
저녁 6시·9시

천생연분 리턴즈

본격 사심방송! 스타 리얼 연애 바라이어티!

MBC every1

MBC+ MEDIA
(www.mbcplus.com)

MBC every1

MBC SPORTS+

MBC Drama

MBC MUSIC

MBC Queen



그 시절 이야기

‘올방기’를 회상(回想)한다

이 시 권(편제)



어떤 사람들은 한 직장에 입사해 정년을 맞기도 하고 직장을 옮기는 경우도 있는데... 나 역시 MBC가 한 직장은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점은 MBC 재직기간이 인생 경력 중 가장 중요한 시기였고 많은 경험 이 축적된 기간이었다. 당시를 회상하면 즐거운 추억만 떠오르는 까닭은 MBC 조직원으로 일했던 그때가 항상 보람을 느끼며 살았던 시기였기 때문일 것이다.

1988년 9월에 개최된 제24회 서울 올림픽 당시 MBC는 ‘올림픽방송기획실’을 운용했었다. KBS와 양대 방송 체제에서 MBC의 역할은 분명했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되는 올림픽에서 방송의 비중은 성패를 가른다고 할만큼 중차대할 수밖에 없었다. ‘올림픽방송기획실’은 중계방송을 비롯해 올림픽 관련 기획방송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도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차원에서 조직된 임시 기구였다. 올림픽은 두 말할 것 없이 스포츠 경기가 메인이다. 그럼에도 모든 올림픽을 되돌아보면 스포츠 경기의 하이라이트 보다 개·폐막식의 화려함이 떠오르는 것은 개·폐막 행사가 스포츠 못지않은 중

요한 요소라는 방증일 것이다. 올림픽방송기획실, 줄여서 ‘올방기’는 스포츠, 기술, 홍보, 행사 등 올림픽을 치루는데 필요한 요원들을 담당 부서에서 차출해 구성했다. 당시 나는 문화사업부에서 파견됐다. 서울 올림픽 개·폐회식 연출을 맡은 표재순 이사를 중심으로 MBC가 맡은 문화축제를 치르는 멤버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마음속으로 참 기뻐다. 거국적이며 역사적인 행사의 일원이 된다는 흥분도 따랐다.

4년 전 LA 올림픽은 이전 올림픽과 확연히 다른 개막식을 선보였다. 100대의 피아노 연주도 그랬지만 관람석의 카드섹션은 압권이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깜짝 쇼를 온 세계인에게 보여줬다. 당시로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연출이었다. 개회식 관람객들이 사회자의 구령에 따라 각자 앉아 있는 의자에 놓인 색종이를 머리 위로 올렸을 뿐인데 참가한 159개국의 국기가 눈앞에 펼쳐졌다. 대규모 카드섹션 그 자체도 볼거리지만 참가국 모든 나라의 국기를, 그것도 연습 한번 하지 않은 관람객에 의해서 만들어진 광경은 깜짝 놀랄 진풍경이었다. 서울 올림픽 개회식을 맡은 MBC는 그래서 더욱 부담스러워졌다. 서울올림픽은 개회식 바로 직전에 강상제(江上祭)부터 시작했다. 잠실 메인 스타디움이 한강 옆이니 넓은 강을 활용한 것이

다. 역대 다른 나라 올림픽에서 보지 못한 이벤트였다.

개막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일은 재미 그 자체였다. 과거에 써먹지 않은 한국적 대형 이벤트를 쥐어 짜내는 일은, 일이 아니라 놀이와 같았다. 나 역시 많은 아이디어를 냈지만 채택된 것은 거의 없었다. 강상제 프로그램에 강물 속에서 용(龍)이 하늘로 올라가게 하자는 아이디어도, 시민들이 각자 헬륨가스 풍선을 들고 있다가 개회식 광파르가 울릴 때 손을 떼어 서울 상공에 수천만 개의 오색 풍선이 떠오르게 하자는 아이디어도, 송파구, 강동구 모든 길에 청사초롱을 걸게 하자는 아이디어 마저도 채택되지 않았다. 예능국 이재휘 선배와는 그야말로 쿡썩이 맞았다. 메인스타디움에 입장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잠실 선착장에서 올림픽을 자축하는 공연 축제를 마련해 준 것이다. 연출 이재휘, 조연출 이시권의 2시간짜리 3부 구성물이었다. 깔끔하고도 재미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MBC의 역량이 잘 나타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방기’...올챙이 방귀 뛰는 기술은 어떤건지 모르겠으나 26년 전, 올림픽방송기획실에 모인 MBC맨들은 역사를 기록하고 남기는 기술이 뛰어났다. 어디엔가 기록으로 남아 있을 올림픽방송 백서가 그때를 잘 증명해 줄 것으로 믿는다.



故최정연실장님의 상가를 다녀와서

성 경 환(ANN)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더군요.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듯합니다. 굳이 읽어 볼 가치를 느끼지는 않지만 자화자찬과 과장이 심한 내용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살짝 호기심을 가져보기는 했습니다. 만약 누가 그렇게 회고록을 쓴 그에 대해 評傳을 쓴다면 어쩌면 그 책은 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느닷없이 전직 대통령이 쓴 회고록을 얘기하고 評傳을 운운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최정연 前 아나운서실장께서 作故하셨습니다. 그분 상가에 다녀오면서 아주 심하게 세상의 薄情을 느꼈습니다. 그 며칠 후 이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 일부가 보도를 통해 알려졌을 때 참 별스럽게도 고인 상가의 쓸쓸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1982년 말에 저를 뽑아주신 고인의 모습부터 지금의 아나운서국장까지 저와 함께 아나운서 생활을 하신 역대 실국장님들(최정연/이철원/변용전/김용/차인태/정경수/김충식/최우철/고창근/이윤철/손석희/성경환/김창욱/최재혁/신동호)을 한 분 한 분 꼽아봤습니다. 고인은 일단 저를 뽑아 주신 분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저는 합격조건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음이 분명한데도 과감히 선택해 주신 겁니다. 저는 학생운동 전력을 가진 전과자였거든요. 그 시절 치안본부의 신원조회를 통해 저에 대한 기록은 간단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면접장에서도 인사부장이 물어서 정직하게 답변했고요. 제가 국

장일 때 경험으로, 함께 일할 신입사원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데 국장의 뜻이 결정적이었던 걸 고려해 본다면 고인의 당시 역할도 그랬을 겁니다. 실제로 저는 5차 시험인 최종 면접시험에서 사장, 부사장, 본부장이 모두 합격점수를 준 어느 응시자를 걸러내기 위해 전체 신입사원 합격자 발표날짜까지 미루게 한 적도 있거든요. 그 사이에 제가 주장한 타당한 이유를 찾아내 사장에게 제시하고 관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이셨던 고인께서도 저를 합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라는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국장일 때 저는 자격이 의심되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 임원진을 설득했지만, 고인께서는 저를 합격시키기 위해 당시 이웅희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을 설득하셨을 겁니다.

제가 평생 고인과 나눈 얘기는 몇 마디 안 됩니다. 학생운동 전력 외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한 아나운서였기 때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 분이 실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제가 참여한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푸른 신호등> 중계차를 타는 것 외에는. 그래서 모니터 할 일도 없고 함께 식사할 일도 없었는데, 어느 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많이 맛있어?” 평소 무심했던 분의 뜬금없는 질문에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그게 매우 궁금했던 모양이었습니다. ㅎㅎ

그 다음 이철원 실장님. 유인물에서 보았던 그 분의 본적은 서울로 적혀있었는데 언젠가 그 분 가족의 장례식에 선배들과 함께 간 곳은 전라북도 익산이었습니다. 그 분이라고 본적을 서울로 옮기고 싶었을까요? 아무튼 그 분은 아나운서실장을 하고 전주MBC사장을 역임하셨

습니다. 이 실장님께서 <새농민>이라는 잡지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셨는데 거의 매월 2백자 원고지에 친히 정성스럽게 쓰신 원고를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한 두 번은 뭇 모르고 감히 그 원고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설교를 들었습니다. 진땀나는 시간이었지요. 아, 이렇게 쓰다가는 한도 끝도 없겠습니 다. 아나운서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인원이 34명으로 줄고 일개 팀으로 전략한 적도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아나운서부문 직원만을 계약직으로 뽑기도 했지요. 이런 역사까지 기억해가며 역대 아나운서실국장님에 대해 쓰려다 보니 턱 걸리는 게 있어서 더 이상 쓰지 못하겠네요. 아나운서들의 할 일을 줄이면 그 수가 줄고, 그렇게 되면 다시 팀으로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팀에서 국으로 부활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국장일 때는 아나운서를 꼭 50명으로 채웠습니다. 취임할 때 국장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기로 공약한 대로 저를 제외하고 모든 아나운서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관창은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 제 자랑을 하고 말았군요. 하지만 이전 대통령 회고록에서처럼 자화자찬이나 과장은 없습니다. 위기라고 할 때 좋은 시절을 잠깐 떠올려 본 것뿐입니다.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 제 머리 속에서는 1982년부터 현재까지의 아나운서실국장님들에 대한 평을 다했습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머릿속에서 꺼내겠습니다. 그 중 최고의 평을 해드리고 싶은 딱 한 분이 故 최정연실장님입니다. 저를 뽑아주신 분이거든요.

부디 좋은데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경·조사

■ 팔순 ■

엄웅열(대구)4/1 이명구(기술)4/5 김철수(미주)4/19 구영섭(기술)5/7
박희주(업무)5/7 권순복(업무)5/10 임백순(전주)5/28

■ 고희 ■

이건세(편제)4/3 김영면(편제)4/21 정태석(관리)4/24 김영택(보도)4/26
박찬순(편제)5/5 유희근(보도)5/9 한박무(보도)5/9 이기섭(관리)5/11
이승문(편제)5/12 정연호(ANN)5/25 김일수(편제)5/28

■ 회갑 ■

이종수(관리)4/15 김성규(관리)4/18 김재동(편제)4/23 이준희(보도)4/28
윤영관(편제)5/1 오범성(관리)5/6 전영도(기술)5/7 김시리(편제)5/10
주철환(편제)5/29

■ 결혼 ■

김종창(편제)장녀1/25 박창복(업무)차녀1/31 안종순(ANN)차녀1/31
한재수(관리)장남1/31 배귀섭(보도)아들3/7 장 용(기술)장남3/7
김경호(기술)장녀3/8 안재기(보도)차남3/29 김만기(편제)장남3/29

■ 부음 ■

이영삼(편제)장모상1/10 하병호(기술)부친상1/21 염영수(편제)부친상1/24
최영성(편제)형님상2/9 이은용(기술)장모상2/12 조학동(기술)부친상2/21
김종윤(기술)장모상3/6

■ 본인사망 ■

최정연(ANN) 1월21일(수) 별세. 향년 79세. 1961년 KBS 아나운서로 출발해 1964년 MBC로 옮겨 아나운서실장과 원주MBC 사장을 역임했다.

엄후진(관리) 2월7일(토) 별세. 향년 94세. TV 개국 때 입사해 8년간 교육국에서 근무했으며, 1921년생으로 사우회 최고령 회원이었다. 사우회 사무실 벽에 걸려있는 '放送文化暢達'이라는 액자는 사우회가 창립한 1990년에 고인이 써서 기증한 것이다.

박화정(보도) 2월13일(금) 별세. 향년 72세. 1980년에 입사해 18년동안 CG실에서만 근무했다.

황영선(업무) 2월15일(일) 별세. 향년 77세. 1963년에 입사해 총무국장과 관리이사, 춘천MBC 사장을 지냈다.

이경열(기술) 2월16일(월) 별세. 향년 63세. 1977년 MBC에 입사해 방송기술국장 겸 춘주MBC 사장을 역임했다.

김천근(관리) 3월2일(월) 별세. 향년 76세. 1972년에 MBC에 입사해 차량부에서 근무하다가 1998년에 정년 퇴직했다.

회원 / 회비관리

■ 신규입회 ■

姜奭範(기술) 010-9199-5653 02-896-5279
금천구 독산로50길 89, 111-701 (시흥동 삼익A)
金京中(보도) 010-5384-0020 02-338-4490

종로구 통일로18길 9, 113-203 (무악동 인왕산아이파크)
金璟鎬(기술) 010-9023-0089
고양시 일산동구탄중로 385, 1107-304 (중산동 중산마을)
金東守(보도) 010-5249-9315 031-913-6947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128, 804-1703 (탄현마을)
金愛正(관리) 010-9292-9921 02-2651-4697
양천구 목동서로 401, A-1604 (신정동 대림아크로빌)
金正路(편제) 010-9199-5751 / 중구 퇴계로6가길 14, 402호 (남창동)
金鍾吉(편제) 010-8997-2197 041-337-9011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로 1121 (성일산채)
朴魯盛(관리) 010-4851-5857 02-3463-5859
송파구 잠실로 62, 330-2702 (잠실동 트리지움)
朴爽圭(관리) 010-9199-5734 02-2652-1590
양천구 목동중앙로 11, 205-602 (목동 대원칸타빌)
裴相茂(기술) 010-8955-3906 02-6436-1095
관악구 성현로 80, 131-104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孫圭憲(관리) 010-9105-2324 070-720-2603
파주시 구절초길 20 (문발동)
宋承鍾(편제) 010-5385-3038 031-902-6335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96, 116-1501 (마두동 강촌마을)
宋昌儀(편제) 010-5385-3037
양천구 목동서로 155, 109-1801 (목동 동양파라곤)
梁成鎬(보도) 010-8915-2430 02-783-5131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 B-702 (여의도동 수정A)
柳鳳熙(관리) 010-5253-7001 02-6294-7001
영등포구 당산로42길 7, 202-901 (당산2차 효성타운)
柳宗鉉(보도) 010-9105-1257 02-547-7339
강남구 선릉로126길 22, 103-1702 (삼성동 롯데캐슬프리미어)
尹慶鎭(편제) 010-9105-1314 070-8291-9549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87, 1001-1002 (일산동 후곡마을)
李鏡煥(기술) 010-8955-3893 02-702-3350
과천시 별양로 12, 329-1002 (원문동 래미안슈르A)
李光烈(편제) 010-5413-1034
광진구 아차산로 537-17, 1403-2004 (광장동 힐스테이트)
李茂永(편제) 010-5247-9832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92, 506-603 (주엽동 강선마을)
李錫一(보도) 010-5384-0011 02-780-1490
영등포구 여의동로3길 10, 401-2703 (여의도 자이A)
李殷珪(편제) 010-5288-0293 070-7522-4193
종로구 사직로 102 광화문의꿈A 1004호 (필운동)
李殷鎔(기술) 010-3748-4534 02-3461-9628
강남구 남부순환로365길 16, 101-608 (도곡동 대림A)
李仁載(편제) 010-9105-1223 031-943-5765
파주시 산남로157번길 201-20, B단지 33호 (산남동)
崔三奎(편제) 010-8887-6137 031-975-9917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29번길 78-2 (성석동)
崔正淳(관리) 010-9199-5788
서초구 신반포로 270, 134-701 (반포동 반포자이A)
崔世勳(보도) 010-5288-0214 02-3273-3589
마포구 마포대로4라길 30,104-601 (마포동 마포쌍용황금A)



MBC C&I는

드라마·교양·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콘텐츠
제작·유통에서부터 방송 중계·편집 등
방송시스템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차별화된 방송 인프라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문화산업의
새 지평을 여는 핵심 주역이 되겠습니다.



MBC C&I

■ 평생회비 ■

김애정(관리)1/2	이은용(기술)1/2	김정로(편제)1/8
이무영(편제)1/8	강석범(기술)1/9	김동수(보도)1/9
유봉희(관리)1/12	이석일(보도)1/14	배상무(기술)1/15
김종길(편제)1/15	이광열(편제)1/15	손규현(관리)1/16
박상규(관리)1/16	이인재(편제)1/19	양성호(보도)1/20
최세훈(보도)1/21	박노성(관리)1/22	윤경진(편제)1/23
류종현(보도)1/26	송승중(편제)1/29	최삼규(편제)2/3
이은규(편제)2/6	최정순(관리)2/18	이경환(기술)2/23

■ 연회비 ■

1월 : 강유현(15) 고병조(15,80세완납) 권혁화(15) 김강정(16) 김경호(15)
 김부영(15,80세완납) 김상호(15) 김윤근(15) 김일수(14~15) 김종수(15)
 남기두(15) 박기윤(15) 박명하(09~13) 박삼열(15~17) 박세림(15)
 박준평(15) 배상호(15) 서정호(15) 손영조(15) 신무성(15) 연규철(16)
 염영수(15) 오남열(15) 유순옥(13) 유흥철(15) 윤남현(15) 이기선(15)
 이상원(대구,15) 이영호(15) 이종화(15) 이하결(15) 정갑표(15)
 정동영(대구,15) 정명환(15) 정봉일(15) 정상화(15) 정승호(16) 조무영(15)
 조병락(15~24,80세완납) 차명륜(15)故최정연(97~14) 표찬일(15)

2월 : 강철호(15) 강효복(15) 권오용(편제,15) 권황택(15) 김경일(15) 김기도(15)
 김만기(15~16) 김병택(15,80세완납) 김상옥(15) 김영균(15)
 김영호(16~21,80세완납) 김종국(관리,15~17) 김창동(15) 김휴선(15)
 김희을(14) 남의균(15) 노성석(15) 맹광호(14,80세완납) 맹석기(15)
 박성원(08~14) 박승기(전주,16~20)故박화정(13~14) 방운식(13~15)
 백낙왕(15) 손도정(15) 신형창(15,80세완납) 안계홍(14~15) 안병태(15)
 양홍열(15) 오두영(15,80세완납) 오학식(14) 윤풍기(15~17) 윤현곤(15~17)
 이규용(14~15) 이두표(15) 이방근(14~15) 이상립(15) 이상수(14~15)
 이상혁(16) 이성구(15) 이양길(15) 이완수(15) 이용재(15~19)
 이훈상(11~15) 임봉주(16) 장기태(15) 전병욱(15) 전용수(16) 전지웅(15)
 정석진(15) 정영수(15) 정준모(15) 조성식(15) 조정구(14~15) 차기동(15)
 채애림(14~15) 최홍림(15) 하영현(14~15) 홍순영(15) 홍신숙(15)
 홍운호(15) 홍이표(15)故황영선(08~14) 황진환(15~17,80세완납)

※ 3~4월 평생회비, 연회비 내신 분들 명단은 29호 회보에 실습니다.

전화/주소 변경

편제 : 권병국 010-5807-5454
 김양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85번길 27-1, 1층 (심곡동)
 유흥열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79, 308-504 (식사동 블루밍A)
 이정화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 3-712 (여의도동 대교A)
 보도 : 박노홍 010-5289-1890 / 장석호 010-5384-0019
 안성일 강서구 마곡서로 133, 707-402 (마곡동 마곡M밸리)
 ANN : 차인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 24-304 (압구정동 현대A)
 기술 : 권윤성 010-9105-1383
 박진석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78번길 81, 101-901 (소사본동 두산A)
 이우철 송파구 올림픽로 99, 115-2101 (잠실동 잠실엘스A)
 황선영 안성시 대덕면 안성맞춤대로 1654, 104-302 (유안A)
 황윤환 010-6271-3559
 업무 : 윤영래 광진구 광나루로56길 5, 4-901 (구의동 현대프라임A)
 관리 : 강선희 인천시 서구 검단로 534, 501호 (마전동 타워팰리스)
 김경일 010-4212-3328
 김성익 노원구 한글비석로 479, 111-303 (상계동 보람A)
 김연두 중랑구 동일로 752, 109-2302 (중화동 중화한신A)
 노성석 010-4415-3346
 박미숙 서대문구 수색로 100, 214-204 (DMC래미안e편한세상)
 박성원 강서구 등촌로 163, 123-202 (등촌동 현대아이파크)
 박종규 010-3688-6765 / 선남준 010-5308-0417
 신견옥 동작구 상도로 346-2, 205-1701 (엠코타운 애스톤파크)
 오원섭 과천시 별양로 85, 405-1405 (별양동 주공4단지A)
 이길범 양천구 중앙로9길 61, 101-1703 (신월동 롯데캐슬)
 이소진 은평구 통일로72길 17-35 미건빌라 102호 (불광동)
 이용우 송파구 송이로21길 23, 102-802 (가락3차 쌍용스윗닷홈)
 이종철 010-3772-7726 / 정준모 010-3661-3663
 최동윤 서대문구 모래내로17안길 38, 201호 (홍은동 넥서스빌2차)
 하영현 010-3134-6059
 대구 : 정봉일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7, 103-702 (우방사랑마을)
 대전 : 조준희 관악구 남부순환로256길 16 풍산캐슬A 102호 (남현동)
 춘천 : 임성진 강서구 방화대로45길 32, 3-406 (방화동 동부센트레빌)

회 원 동 정



임국희(ANN, 사우회 감사)
 3월4일(수) 여의도 중국음식점 '열빈'에서 열린 2015년 한국아나운서클럽 정기총회에서 제8대 회장으로 선출돼 취임식을 가졌다. 한국아나운서클럽은 1997년에 발족했는데 여성회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기는 2년.



송창의(편제)
 2월 1일 CJ E&M 방송사업부문 프로그램개발센터장에서 TV조선 제작본부장으로 일터를 옮겼다. 1977년 MBC PD로 입사, <세 친구> 등을 연출하다가 2006년 CJ E&M으로 자리를 옮겨 tvN 개국을 이끌었으며 최근에는 '크리에이티브 어드바이저'로 프로그램 제작의 자문 역할을 했었다.



허연희(보도, 아이엠비씨 사장)
 올해로 창사 15년을 맞아 2월4일 역대 임원들을 초청해서 직원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춘상, 조정민, 하동근, 홍은주, 손관승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11명의 역대 임원들이 참석했다.



유효근(관리)
 지난 연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활동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행정자치부장관 상을 수상했다. 네이버 북 카페에 소설 "오직 그대만이"를 연재하고 있다.



이대우(보도, 군장대학교 석좌 교수)
 1월 28일 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공익광고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건세(편제, 사우회 부회장, 한문공부방 훈장)
 한국고전번역원 시행 번역위원 시험에 합격했다.



윤홍섭(보도, 사우회 이사)
 불교방송(BBS) 시청자 위원으로 연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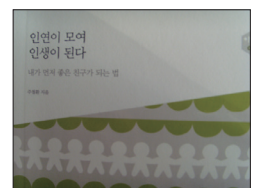


최명구(기술)
 1월 14일 경기도 고양시 시민감시관으로서 투명한 시정과 시민의 권익보호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고양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을 받았다.



주철환(편제, 아주대 교수)
 올해 회갑을 맞은 기념으로 열다섯 번째 저서인 '인연이 모여 인생이 된다'를 출간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는, 좋은 친구가 되려면 어떤 준비와 학습이 필요한지 나름대로 연구한 성과를 이 책에 담았다.



청죽회(회장 이경재)

1월8일 종로에 있는 '종로삼계탕'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전년도 결산보고 및 인준, 임기만료 임원의 전원 연임을 의결했다.

경리부출신 모임(회장 김민식)

1월7일 광화문에 있는 '안성또순이'에서 신년모임을 가졌다.

도곡동 사원아파트 경영부문 근무 사우모임(회장 김용빈)

1월20일 도곡동에 있는 '마포갈비'에서 신년모임을 갖고 2015년 행사 일정을 확정했다.

MBC-KBS-SBS사우회 신년하례

3사 사우회가 1월16일(금) 여의도 '즐거운 세상'에서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지난해 KBS 주관으로 시작된 바둑대회 제2회 대회를 4월 23일(목)에 MBC 주관으로 사우회 사무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출전 선수와 대진 방법 등은 추후 3사 사우회 바둑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할 예정이다. MBC에서 김수량 회장을 대신해 신대근(보도) 부회장 등 5명, KBS에서 정근춘 회장 외 7명, SBS에서 김수웅 회장 외 3명 등 모두 15명이 참석했다.



국가부도 위기(IMF)의 칼바람이 코끝까지 밀려 온 1996년 겨울.

다가 올 ‘국난’을 모른 채 거리는 ‘흥청’ 사람들은 ‘망청’이었다. 여의도의 밤 거리도 불야성이었다. 필자

도 연말분위기에 거나하게 한잔 걸치고 택시를 잡을 양으로 여의도 사옥 남문 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남문 건너편에 승용차 한 대가 시동이 걸린 채 서있고 사내 둘이서 비틀거리는 내게로 다가오더니 “아저씨 과음하셨습니다, 조심하셔야죠”하며 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는 것이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어 상의 안주머니를 더듬어보니 그 새 지갑이 없어졌다. 나는 사내들을 향해 “개XX들, 거기 안 서. 내 지갑 내놓아라.” 외쳤지만 사내들은 세워뒀던 승용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져버렸다.

지갑엔 신분증, 신용카드, 명함, 현금 몇 만 원, 10만원 수표 두 어장이 들어 있었다.

‘아리랑 치기’의 추억

김철호(보도)

“이런 젠장, 오늘 재수 옴 붙었네. 똘!”

사내들이 사라진 쪽을 향해 가래침을 뱉어주고 신고도 할 겸 5층 보도국으로 올라갔다. 방금 전 지갑 도둑맞은 얘기를 하자 야근기자들이 재미있다는 듯

“김 선배, ‘아리랑 치기’ 당했네.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 했다.

‘아리랑 치기’를 당한 것이다.

헌데, 취객털이가 왜 하필 ‘아리랑 치기’ 일까?

〈아리랑〉은 우리의 전통민요이자 한민족(韓民族) 최고의 애국가 아닌가? 남북 단일팀 응원가로 쓰이기도 하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선정되기까지 했는데 말이다. 그런 자랑스런 아리랑을 범죄의 비속어로 쓰다니...

‘아리랑 치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說)이 분분하다.

1960년대 일본이 조총련을 비하하는 뜻으로 부른 ‘아리랑 쪽’에서 유래했다고도 하고, 야구에서 한국인 투수의 너클볼을 ‘아리랑 볼’이라

고 한데서 비롯됐다고도 한다.

모두 우리의 얼과 문화를 폄하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아리랑 치기’를 ‘취객치기’ 쪽으로 하면 어떨까?

유네스코는 2012년 12월5일, 우리 민요 〈아리랑〉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바 있다. 〈아리랑〉이 단순히 우리의 문화유산을 넘어 통일코리아의 애국가로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지구촌 곳곳에서 우렁차게 불려 질 날을 기대해 본다.

‘아리랑 치기’ 당한 후 열흘 쯤 지나 집에 조그만 소포 하나가 배달됐다.

날치기 당한 그 지갑이었다. 반갑게 열어보니 신분증, 명함, 신용카드까지 그대로였으나 현금은 한 푼도 없었다. 현금이 있던 자리엔 메모쪽지 하나가 있었다.

「기자님, 수표와 현금은 저희가 잘 쓰겠습니다. 연말이라고 너무 과음하면 안되죠, 앞으로 MBC뉴스 열심히 볼게요.」

“그래도 싸가지 있는 놈들!”



7년 전 이맘때, 넘치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 소일 거리를 찾다가 엉겁결에 한문공부를 시작했다. 자식보다 어린 학생들 틈에 끼어 고전번역교육원 등에서 공부한 게 4년, 그리고 내친 김에 독학으로 더 채운 기간 3년, 이른바 ‘1만 시간의 법칙’을 지키려고 애쓴 덕분인지 한국고전번역원 시행 번역위원 시험에 어렵게 합격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을 번역하는 국책사업에 참여할 길이 열렸으니 내 생애 마지막 도전인지라 한결 가슴이 설렌다.

애초엔 여가활용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시작했지만 막상 고전의 바다 속 깊고 너른 세계에 무뎠다 보니, 문득 잊었던 고향을 다시 찾은 듯 갈수록 흥미를 더하게 되었다. 그 뿐인가, 지나온 세월동안 세상이치는 고사하고 자신도 갈무리할 줄 모르면서 철모르고 한 세상을 살아 온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부족한 인간인가를 되짚는 기회도 되었다. 그 동안 이것저것 얻어들은 것이 많지 않지만 공부하면서 새롭게 느낀 교훈 두 가지만 들어 보기로 한다.

- 민자건이 일찍 어머니를 여의자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맞아들여 배다른 동생 둘을 두게 되었다. 그런데 계모는 유독 민자건만을 미워하여, 그에겐 솜옷 대신 갈대꽃을 누벼 넣은 옷을 입혀 겨울을 나게 하였다. 추운 겨울 어느 날, 아버지가 민자건에게 말고삐를 맡기고 수레를 몰게 했는데 몸이 얼어 그만 채찍을 놓치고 말았다. 아버지가 그를 야단쳤지만 민자건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연이어 채찍을 놓치자 민자건

의 옷을 만져보고 나서 이내 그 이유를 알게 된 아버지는 화김에 계모를 내쫓으려 하였다. 그러자 민자건이 울면서 아버지를 만류하였다. “어머니가 이 집에 계시면 한 자식만 추우면 되지만 어머니가 집을 떠나시면 세 자식이 외롭게 됩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계모도 마음을 고쳐먹고 세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는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었다고 한다.

- 손숙오가 어렸을 때 나가 놀다가 머리가 둘 달린 뱀을 보고, 죽여서 묻고는 집에 돌아와 울었다. 어머니가 그 이유를 묻자, 대답하기를 “들건대 머리가 둘 달린 뱀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하는데, 조금 전 제가 그것을 봤으니 어머니를 두고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어머니가 “뱀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자, “다른 사람이 또 볼까 염려되어 죽여 묻었습니다.” 하였다. 어머니는 “내 들으니, 음덕을 베푼 사람에겐 하늘이 복으로 보답해 준다고 하였으니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그는 장성하여 楚나라의 정승이 되었다.

소학(小學) 등에 나오는 두 이야기처럼 옛 사람들의 자녀교육은, 우선 ‘남을 위한 배려’를 바탕으로 삼고 어려서부터 철저히 인성교육을 시킨 뒤 학문을 연마하도록 하여,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완성된 인격체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고, 여기에서 나아가 학문과 예술을 일치시키는 학예일치의 경지도 추구하였다. 이른바 감동의 언어인 문학, 지혜의 언어인 역사, 사유의 언어인 철학에 詩, 書, 畫 등을 함께 익히게 했으니, 바로 文, 史, 哲은 오늘날 인문사회 계열의 전공필수(이성훈련)이고 詩, 書, 畫는 교양필수(감성훈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선비란 맑은 인성의 토대 위에 이성과 감성

을 조화롭게 갖춘 고품격의 인간상이라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옛날에 비해 오늘날 우리의 교육 실태는 과연 어떠한가? 혹시나 인성교육은 아예 젓혀두고 세속적인 성취와 물질적인 욕망의 추구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는 것은 아닐는지 묻고 싶다. 그리하여 몸은 한국인이지만 가치관이나 사고는 서구인보다 더 서구적이 된 결과, 그 동안의 묵은 병폐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연이어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진단해 보곤 한다. 어려서부터 한 편으로만 치우친 교육을 받은 우리 후손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미래를 꾸며나갈 것인지 몹시 걱정되는데, 이것이 다만 나만의 지나친 기우이길 바랄 뿐이다.

흔히 ‘고전은 누구나 그 가치를 인정하지만 누구도 읽지 않는 책’이라고 빗대어 말하곤 한다. 하지만 번잡한 세상살이에서 물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나이에, 언젠가 기어코 닥칠 두려운 심연을 눈앞에 둔 세대에겐 더할 수 없이 절실한 반려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뒤늦게 발을 들여놓은 동양고전의 세계,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욱 많아지고 부질없이 바쁘고도 힘이 들어, 때로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까 궁리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꿈꾸는 동안에는 늙지 않는 법’, 이제는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日暮途遠)’는 푸념은 접어두고 묵묵히 씀 없이 ‘오래된 미래’를 찾아 나의 길을 걸어가려 한다.

(덧붙임) 한문교육기관으로는 한국고전번역교육원(서울, 전주, 밀양)을 비롯하여 성균관 한림원, 전통문화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다수의 사설 교육기관이 있으며, 전통문화연구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오래된 미래를 찾아

이건세(편제)

기획시리즈

『元老를 만나다』

사우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元老를 만나다>를 기획합니다.

편의상 분야별로 나누어 元老께서 MBC에 얹힌 인연과 함께 기억하고 있는 ‘MBC 歷史’의 한 토막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 두 번째 만난 분은 徐圭錫고문입니다.

6~70년대 편성과 제작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고문님의 방송생활에 얹힌 회고를 듣습니다.



- 젊은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고려대 법대 2학년 때 6.25가 나서 통역장교로 복무했는데, 휴전이 됐는데도 보내주질 않아 그래서 1955년에야 예편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그동안의 공부에 대한 갈증 때문에 2년 동안 매일 하숙집-강의실-도서관 생활만 했더니 폐결핵에 걸려서 친구의 주선으로 마산요양소에서 1년 정도 치료받고 나왔어요. 서울로 올라와 ‘女苑’사에 잠시 근무하면서 당시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품 ‘닥터 지바고’의 번역대조와 출판에도 참여하고 그랬지.

- 방송과의 인연은 어떻게 맺게 되셨나요?

1958년 어느 날에 공보실에서 3급 공무원을 공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응시했는데 엄청난 경쟁 속에 4명중의 한명으로 합격해서 1959년에 방송관리국 관리과 사무관대우 촉탁이 돼서 ‘방송문화연구실’에서 근무를 했어요. 여기는 방송의 제도, 편성, 제작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 연구기관이라서 방송에 관해 본격적인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됐는데 월간지, 주간지, 모니터誌 등을 발행하느라고 무척 바빴어요. 1961년에 서울중앙방송국 편성계장으로 2개월 근무하다가 콜롬보플랜에 의해 호주에 가서 6개월 연수를 받게 됐는데, 이때 호주방송(ABC)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게 됐지. 1963년 공보부 지도계장을 하는 중에 당시 민방들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져 자율적인 기구로 ‘방송윤리위원회’(위원장 姜元龍)를 조직하고 그 뒷바라지를 내가 했어요.

- 공보부 계실 때 승진을 사양한 에피소드가 있던데요?

그게, 어느 날 고등학교 동기인 임성희(前 중앙대 총장)씨가 장관으로 왔는데, 같은 층에서 매일 보는 게 불편했던지 날 승진시켜서 KBS의 TV편성과장(서기관)으로 보내려한다고 인사과장이 귀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장관실로 가서 “내가 공채로 들어왔는데 동창이 장관으로 왔다고 내가 좋은 자리로 가면 그 꼬리표가 계속 내게 붙어다닐 거 아닌가. 호의는 고마우나 난 싫네”라고 사양했는데 그 얘기가 어떻게 소문이 났어요, 허허

- MBC에 오신 때가 1964년이셨죠?

그렇죠. 당시 MBC에서는 회사가 5.16장학재단으로 편입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직원들이 꽤 많았던 상황인데, 삼성이 ‘라디오서울’이라는 민방을 시작하면서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지 정환옥전무를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대거 그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회사가 초토화됐어요. 사실은 내게도 그 쪽에서 오라는 권유가 있었는데 나로서는 첫째, 방송이 일개 私企業의 앞잡이가 될 것이 뻔한데 내가 거기에 충성해야하는 상황이 싫었고, 두 번째는 내가 공보실에 있을 때 함께 근무했던 金某씨가 거기 조직

책임자로 있었는데 날더러 와서 조사업무를 하라는 거야. 일언지하에 거절했지.

또 하나, 당시 쏘모라는 공보부장관이 경향신문 ‘여적’의 필화사건을 빌미로 신문을 폐간시킨 뒤 전 직원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경향신문이라는 호랑이를 내가 가진 권총으로 사살했다”고 호언하는 모습을 보고 ‘장관이라는 사람의 언론관이 저런 수준인가’하고 엄청 충격을 받아서 ‘이런 정부에서 공무원을 해야 하나?’라는 회의감에 젖어있던 때였어요. 그런 상황인데 MBC에서 편성책임자로 오라는 제의를 받으니까 나로서는 “장학재단이 운영하는 방송국이라면 ‘방송의 공공성’을 발현하는데 더 적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흔쾌히 수락한 거지요. 박종민씨랑 둘이서 고원증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직위나 직책을 따지지 않겠다. 다만 좋은 방송을 할 것인지만 약속해달라”고 말했어요.



- MBC에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은 뭐였나요?

와서 봤더니 한마디로 썩대밭이더라구. 나간 사람들이 당장 내일 나갈 방송 테이프도 안 넘겨주고 가서 펑크가 나게 될 지경이었어요. 이성규 아나운서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방송을 하는데 도무지 들어줄 수가 없어. 당시에는 아나운서가 회사의 얼굴인데 얼굴이 없으니 어떡해. 할 수없이 옛날에 근무했던 인연으로 KBS로 갔지. 고려대 선배 장기범 아나운서실장을 만나 ‘새로운 출발’을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했더니

“나도 생각은 있지만 명색 KBS의 간판인데 어떻게 옮기냐”고 사양해요. 그래서 “그러면 후배 중에서 누구를 데려가도 허락해주겠소?”했더니 “그러라”는 거야. 그런데 다음 날엔 임택근 아나운서가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종로2가 YMCA 지하 다방에서 만났더니 “MBC로 오라는 제의를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회사의 ‘얼굴마담’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대우가 필요하다. 모든 기획이나 실무는 서민이 하시되 대외적으로 필요한 타이틀을 내게 줄 수 없느냐.”라고 ‘신사협정’을 제안하는 거야. 그래서 고 사장에게 가서 “회사에서 당장 필요한 사람이 아나운서인데 임택근씨가 명분만 주면 오겠다고 하니 그에게 방송부장을 주고 나는 차장으로 일하겠소”라고 했더니 내 손을 움켜쥐면서 “그렇게 해주면 정말 고맙겠다”고 반색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임택근씨가 MBC로 왔는데 여담이지만, 그 때의 ‘신사협정’이 그 분과

일하는 동안 줄곧 지켜졌어요. 80년도 해직 당할 때까지 여러 직책으로 그 분과 어울렸지만 일하는데 있어서만큼은 내 의견을 늘 존중해주고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어요. 참 확실한 ‘신사’였지.

- 1964년 개편 때부터 편성이 종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지던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 편성은 일본 민방의 복사판이었지. 음악, 코미디, 공개오락이 주축을 이뤘고 프로그램의 제목도 예컨대 ‘석양의 프롬나드’ 식으로 겉멋에 치우친 것들이 수도룩했어요. 이런 오락 프로그램을 줄이면서 당장 필요한 게 편성의 기본 틀을 세우는 건데, 내 평소의 지론은 ‘나라가 분단된 상태에서 대중매체가 해야 할 역할 중의 하나는 ‘한국의 근대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른바 계몽사상이라고 할까. 당시의 근대화는 8할이 농민인 이 나라에서 가급적 농민의 숫자를 줄이고 사회도 대중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어서, 그러자니 교육적, 교양적인 내용이 주를 이룰 수밖에. 대표적인 게 농어촌 대상 프로그램 ‘밝아오는 우리마을’인데 이 프로그램 하나를 위해서 농촌진흥청 연락관이 상주하다시피 했어요. 조중출사장이 와서는 이 프로그램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서 본인이 밖에 나가 홍보도 하고 아는 분들을 방송에 소개도 하고 했지. 자문위원회도 만들고...상업방송치고는 방송규모가 KBS를 능가할 정도였으니까.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상방송’을 시작했는데, 새벽에 “밝아오는...”을 방송하고 아침이 되면 “영이네 집”이라는 대화극(對話劇), 출근 시간에는 “푸른 신호등”에서 교통정보와 문제점을 토론하는 등 탄력성 있게 편성을 꾸렸어요. 오락도 경박하지 않은 ‘한밤의 음악편지’라든지 ‘고전의 향기’, ‘일요일저녁’ 등을 심었고. 그 때 내가 가장 역점을 뒀던 게 ‘절망은 없다’라는 프로였어요. ‘폭풍이 지난 들에도 꽃은 피고 지진에 무너진 땅에도 맑은 샘은 솟아 흐릅니다’로 시작되는 ‘절망은 없다’는, ‘절망’이라는否定을 ‘없다’라고 다시 한번 否定하는 즉 ‘부정의 부정’의 철학이 담긴 프로그램으로 처음엔 취재해서 방송하고 이어서 소재공모를 했는데 절망을 극복한 갖가지 사례들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회사의 품격도 높이고 청취율도 올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어요. 처음 편성을 제안할 때 경영진에게 ‘自主放送(sustaining program)’을 하자고 시작한 거라서 광고가 없었는데 인기가 올라가니까 광고주들이 난리가 났어요. 할 수 없이 나중에 유한양행 단독 스폰서를 붙인 걸로 기억하는데 박수복, 김진희, 최원PD들이 애를 많이 썼지요. 나중에 책으로 나왔는데 내가 총무국장 하면서 판권도장을 찍어준 게 생각나네.

- 다음 해에 駐日특파원으로 가신 거죠?

초대 정순일씨 다음으로 일본 특파원이 됐는데 조중출사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뉴스야 뭐 통신이 잘 전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가서 장차 설립할 TV에 관해서 공부 좀 해와요”그러더라구. 근데 내가 일본에 가는 것 관련해서 어이없는說이 있었어요.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후〉

당시尹전무라고 새로 왔는데 그 분이 출근부를 수위 앞에 놔두고 직원들에게 거기다 도장을 찍으라고 한거야. 마치 수위가 감시하는 격이 된거지. 그랬더니 어느 날 직원들이 내 방에 와서 ‘모욕적인 조치라서 앞으로 출근부에 도장 안 찍겠다’고 반발하는데 나도 뭐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위에서는 ‘서 아무개가 사주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찍혀서 일본으로 간거다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암튼, 일본에 있으면서 일 참 많이 했어요. 틈나는 대로 NHK, TBS, 후지TV에 가서 제작현장을 답사하고 조직 현황도 살펴보면서 TV공부를 많이 했지.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팝송 음반을 구하기 어려워 일본에서 구입하곤 했는데 음반 조달업무도 직접 했고, 이종환씨가 진행하는 ‘세계의 톱싱거’라는 음악프로그램에서 일본을 연결하면 내가 받아서 당시 일본의 팝송 인기순위를 전해주고 그 음악도 보내주는 식의 리포터도 했어요.

-2년 후에 돌아오셔서 편성국장이 되셨죠?

그렇지. 여담인데, 정순일씨와 나는 방송문화연구실 때부터 나중에 방송위원회까지 다섯 번에 걸쳐서 자리를 주거나 받거나 했어요. 1967년에 서울로 돌아와서 또 그 분이 하던 편성국장을 맡게 됐지. 그 무렵 TV개국이 임박하다 보니까 TV준비위원회에서 기간요원을 뽑는데 라디오 사람들 가운데 유능한 친구들만 골라 간단 말이야. 그렇게 되니까 라디오가 제대로 안 되겠더라구. 그래서 조사장에게 “사장님, 라디오 PD 열 사람만 뽑게 해주시고 저에게 3개월만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3개월 이후에는 누구를 데려가도 좋습니다”라고 했지. 그렇게 라디오 PD 2기생 열 사람을 한꺼번에 뽑아서 맹훈련을 시켰어요. 그 중에 고무송씨 같은 분은 신문사 기사를 하다가 온 사람인데 인쇄매체에서 온 사람은 방송에 대해서 뭔가 허허로움을 느낄 것 같더라구. 그래서 라디오 매체는 이런 메리트도 있다는 뜻으로 롱펠로우의 시 “화살과 노래”를 일부러 들려줬는데 나중에 애길 들으니 그게 그렇게 인상적이었다고 하드만. 암튼 그 열 사람 중 한명도 TV쪽으로는 안 갔고 이들이 결국 TV시대에 라디오의 중심 인력이 됐어요.

-TV개국 임박해서는 TV편성국장으로 가셨구요.

그렇지. 정순일씨하고 또 자리바꿈을 한 건데 TV편성국장은 오래 못했어요. 왜 그런고니 TV개국요원을 뽑는데 나는 가급적 이쪽 직급과 맞는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스카우트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지. 근데 경영진에서는 ‘아니, 개국은 다가오는데 언제 다 하려고 하느냐’면서 어느 날 TBC에서 이기하씨 외 열 몇 명을 무더기로 데려오는 거야. 내가 뒤통수 맞은거지. 게다가 이기하씨가 국장급이라서 대우를 해야 한다고 TV제작국을 신설해서

그이를 국장으로 하고 나는 편성국만 하는 걸로....그렇게 되니까 내부적인 반발도 있었고 나도 경영진과 갈등이 생길 수 밖에. 경영진과 갈등이 생겨서 내가 이틀인가 회사를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조사장이 좀 보자고 하더라고. 그래 만나서 “좋은 사회 만들자고 하면서 이런 야바위 짓까지 하면서 TV를 하면 뭐합니까?”라고 사정없이 대들었지. 그랬더니 “당신 기분은 알겠다. 일본 숙담에 ‘능력있는 때는 발톱을 감춘다’는 말이 있어. 다른 생각 말고 널부터 나와” 그러는 거야. 할 수 있나, 내가 졌지.



〈이환의 사장, 임택근 전무와 함께〉

-총무국장과 관리국장도 하셨나부죠?

그게 글썽, 정동으로 사옥을 옮긴 뒤에, 당시 경리부와 자재부에 조사장과 가까운 사람을 책임있는 자리에 앉혔었는데 두 군데 모두에서 사고가 발생한 거야. 어느 날인가 사장이 날 부르더니 ‘당신이 총무국장을 좀 맡으라’고 간청하는 거라. 내가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두 번이나 거절했더니 일방적으로 발령을 내버리더라구. 한술 더 떠서 관리국장까지 겸직이야. 할 수 없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지하 기계실 방수가 잘못돼서 비상 발전기에 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몇 초간 정파사고가 있었어요. 관리국장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냐. 그래 징계위원회를 열어 2개월 감봉을 결정해서 공고를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징계를 당한 사람은 관리국장 서규석, 징계 사항을 공고하는 사람은 총무국장 서규석, 이렇게 되는 웃지 못할 사연도 있었어요.

총무국장으로 있을 때는 정동 사옥 건설할 때 끊었던 어음이 매일 돌아왔는데 조사장은 돈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 ‘나 몰라라’하니까 값을 수가 없는 거야. 할 수 없이 김석겸전무랑 둘이서 재무부 이재국장을 찾아가서 “방송국이 부도가 나는 꼴을 보고만 있을거요?”하고 협박반 애원 반으로 매달려 겨우 돈을 융통해서 여러 건의 어음을 해결할 수 있었지. 그래도 빛이 정리가 안 됐는데 이환의사장이 와서 이후락씨의 도움을 받아 MBC 주식을 열 개 기업들에게 강제로 인수 시켰고, 그 바람에 나중에는 흑자가 나서 세금을 22억 냈다고 직원들이 ‘자랑스런 22억’이라는 리본으로 비꼬는 일도 있었어요. 암튼 흑자로 전환된 것이 나중에 경향신문을 인수하게 되는 빌미가 되기도 했지. 총무국장 시절에 했던 일 중에 회사의 모든 규정들을 다 뒤져서 재정비한 것도 업적이라면 업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1년 후에 다시 TV로 옮기셨죠?

이기하씨가 모종의 문제로 퇴사를 하자 TV제작국장과 편성국장을 합쳐서 TV총국장으로 만들고 거기서 간 거지. 이때에 했던 일들이 많은데, 뉴스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의 제목을 우리말로 정한 거라든지(예: 웃으면 복이 와요) 심야에 하는 ‘명교수 명강의’에 출연하는 교수들에게는 출연료를 악 소리나게 드린다는

지, 허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개국 초기에는 ‘사랑하는 갈대’라든지 ‘개구리 남편’ 같은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은 드라마가 많았는데, 나는 그런 드라마 대신 일상의 생활을 그리는 건전한 홈드라마를 하고 싶었어요. 주일특파원 때 일본TV에서 방영된 홈드라마를 재미있게 봤던 기억도 있고 해서 김포천씨, 김수현씨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만든 게 김수현씨의 ‘새엄마’라는 드라마였어요. 내용은, 새엄마가 한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부흥시킨다 뭐 그런 평범한 애긴데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그런 게 먹히겠냐’고 많이 우려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실패해도 좋으니까 실패를 겁내지 마라’. 이건 내 지론(持論)인데 “윗사람에게는 내게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오. 아랫사람에게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질테니 옳다고 믿는 바를 밀고 나가라”. 이게 한 조직의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암튼, 그렇게 해서 ‘새엄마’가 나가게 됐는데, 맨날 치정과 갈등에 얽힌 드라마만 보다가 씩박한 드라마를 보니까 신선했는지 당장 신문평이 달라지고 요즘 말로 대박이 난 거야. 근데 이 드라마 땀에 이환의사장과 갈등이 생긴 게, 당초 예정은 100회였는데 이게 뜨니까 사장은 연장하자는 의견이고, 나는 일단 100회로 끊고 다른 드라마를 하겠다는 거로 여러 차례 다투었어요.



〈방송문화상 수상식장〉

-꽤 오래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럼. 장장 411회까지 갔으니까 오래 했어요. 그 이후에 같은 작가의 작품 ‘신부일기’ ‘강남가족’ 등이 연속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홈드라마’라는 장르가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지. 근데 작가가 홈드라마만 쓰다보니까 지루했던지 나중에 ‘청춘의 덫’이라는 멜로드라마를 썼는데 불과 몇 회 만에 ‘윤리의 덫’에 걸리고 말았지. 허허.

-RR30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드셨는데요.

그게 1973년인데, 회사가 TV개국하느라고 라디오 쪽에 신경을 덜 썼더니 청취율 조사가 형편없게 나왔나봐. 사장이 부르더니 ‘가서 라디오 살려내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라디오국장으로 갔지. 가자마자 ‘RR30’(Radio Renaissance로 청취율 30%를 이루자)을 기치로 내걸고 SONY사가 신제품 개발할 때 쓴다는 기법을 원용했어요. 뭐냐면, 토요일 오후에 전 직원을 회의실에 모아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주제를 정해서 그룹에 속한 각자가 의견을 돌아가면서 개진하는 거야. 나온 의견들을 여러 장의 카드에 익명으로 모두 기재한 다음에 그걸 모아서 몇 개로 분류해서 정리하면 어느

정도 문제점의 윤곽이 나온다 이거지. 짧은 시간에 한 것치고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나온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당시 회사의 관심이 TV에 쏠리다 보니 라디오는 완전히 무풍지대가 돼서 해먹고 싶은 거 다 해먹고, 특히 일부 간부들의 행태를 예로 들면 '내일이 내 딸 생일이야'라고 직원들에게 공표하는 사람도 있더라구.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정리하고 외부적으로는 라디오와 국민들과의 접점을 찾는 일에 주력했지. 그때 나온 게 '가을맞이 가곡의 밤'같은, 방송도 되고 사업도 되는 일이었어요. 암튼, 30% 청취율 달성은 다 못했지만 새로운 기풍, 라디오의 활력소를 찾는 일 등은 큰 수확이었어요.

-MBC의 사시(社是)를 고문님께서 지으셨다면요?

이환의 사장이 오셔서 간부사원들을 대상으로 사시 공모를 했는데 난 평소 '매스컴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자유, 책임, 품격'을 쓰고 설명까지 덧붙였어요. 그런데 내 기억에, 같이 있던 박근숙씨가 '나라가 분단상태이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언론도 큰 역할을 해야 하니까 단합을 추가하면 좋겠다'해서 '자유, 책임, 품격, 단합'이 사시로서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지. 지난번 신사옥에 가보니까 로비에 '飲水思源'을 크게 써놔는데 그것보다는 社是를 거기에 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자유, 책임, 품격'을 거론한 뜻은 그것이 매스컴이 가져야 할 '정신'인 동시에 실천을 통해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거든.

-임원이 되신 때가 1974년이죠?

라디오국장을 하던 어느 일요일에 등산을 갔는데 사장이 좀 보자고 하더니 '이번 주총에서 당신을 이사로 선임하려고 한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때 두 사람이 이사가 됐지, 나는 내가 방송담당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장이 부르더니 '당신은 총무국장도 해봤고 하니 기술과 관리담당을 시킬테니 양해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제가 언제 뭐 시켜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죠'라고 대답했는데, 그런 일이 나중에 경향신문 합병했을 때도 반복됐어요. 신문담당 이사를 정하는데 전혀 신문 경험이 없는 날더러 신문담당을 하라고 하면서 또 양해를 구하는 거야.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여러 분야를 하니까 좋습니다. 제가 언제 뭘 시켜달라고 합니까?'라고 허허 웃었지. 사실 나는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은 언제나 주인의식을 갖고 임했기 때문에 보직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뭐든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었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시절〉

-신문담당 이사를 하시면서 애로가 많으셨죠?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제일 큰 문제가 호봉 조정문제였어요. 당시 MBC는 근무년수(年數)에 따른 호봉을 받고 있었는데, 초도순시 때 사장이 신문도 MBC와 같은 호봉을 적용하겠다고 별 생각없이 약속을 해버린 거야. 근데 경향은 오래 된 신문이다 보니 근무기간들이 많잖아? 호봉 조정하던 관리 쪽에서 난리가 난거지. 너무 차이가 나거든. 그걸 조정하느라고 1월 초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이 4월로 미뤄지니까 신문 쪽에서 또 야단이야. 내가 그 차액을 계산해보니까 몇 백이 나오더라고. 그래 가불증을 써서 조용중전무와 내 도장을 찍은 다음에 전재옥 관리상무에게 '현금으로 이 돈을 가불해주시오'해서 받아가지고 편집국장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해결을 했지. 그러다가 방송담당 상무로 가게 됐고 그게 MBC에서의 마지막 보직이었어요.

〈후기〉 1980년, 서고문께서는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방송을 떠나게 된다. 그러나 실무에 능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공부하는 방송인으로 유명한 그를 대학들이 그냥 놔둘 리가 없어서 이후 18년간은 교수님으로 변신했고, 1988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을 시작으로 시청자불만처리위원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MBC시청자주권위원장 등 방송계의 요직을 섭렵하시고 2004년에 '방송인 명예의 전당'에 오르셨다. 1929년생이지만 아직도 꼳꼳한 자세를 유지하고 등산을 즐기고 방송에 관한 얘기에 열을 올리는 '영원한 청년' 서규석고문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대담:정리: 편집장

FUJIFILM

FUJINON

HD FIELD BOX LENS

XA99x8.4BESM
TELEPHOTO HD LENS



XA77x9.5BESM
TELEPHOTO HD LENS



4K

35mm PL MOUNT LENS

ZK2.5x14
14-35mm, T2.9



ZK3.5x85
85-300mm, T2.9



ZK4.7x19
19-90mm, T2.9



백두인터내셔널(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21
TEL : 02)575-6433, www.fujinon.co.kr